

지방화시대의 주역 광주전남 양돈조합

취재 : 배용식 기자



▲ 광주전남양돈조합 현판식 광경

UR협상, 축산물수입개방 등 개방화, 국제화에 적응하고 지자체실시로 인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양돈인이 존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업종전문 조합으로 굳게 단합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농가수취가격 안정대를 확고히 설정하여 힘을 모아 앞으로 닥쳐올 난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다지는데 목적두고 설립된 광주전남 양돈조합을 찾았다.

경륜과 젊음이 조화를 이룬곳.

동조합은 조합장과 전무를 제외한 전직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딛은 신입사원

들로 때문지 않은 순수함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이제 업무가 숙달된 이곳에선 윗분들의 경륜과 젊은이들 특유의 자신감과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광주전남양돈조합 (조합장: 김태환)은 양돈협회 전남도협의회에서 각 지부장들의 의견을 모아 이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회원 122명, 총 출자금 1억 6천만원으로 '90년 8월 8일 설립됐다. 동조합은 '90년 10월 10일 농림수산부 인가를 받고 '90년 11월 1일 공판장을 개점하여 업무를 시작 했으며, 계통출하, 사료판매 등 조합의 본격적인 업무는 91년 1월부터 시작하였다.

초대 조합장으로는 양돈협회 광주지부장과 전남도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양돈인으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김태환씨를 선출하고 조합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축협에서 17년간 몸담아 왔으며 실무에 능한 강석근씨를 전무로 영입하였다. 또한 처음 시작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참신하게 출발한다는 계획아래 직원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을 채용했다.

15개 시·군 159명이 조합에 가입

현재 전남도내 유자격 양축농가 527호중 15개 시·군에서 159명으로 약 30%의 양축농가가 조합에 가입해 있으며, 유자격 양축농가의 돼지사육두수 205,780두중 97,242두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양돈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많은 양돈인들의 참여 유도도 조합원 수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조합 가입조건으로는 조합을 처음 시작하였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유자격 대상농가(비육돈 200두이상)에 해당되고 60만원이상의 출자금을 내야한다. 현재 호당 평균 출자금은 120만원이다.

광주전남 양돈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양돈인의 결속을 통한 조합원 수취 가격보장, 조합원 편의사업을 위한 자본마련을 위해 조합원 가입증대 및 출자금 증자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돈가하락에 대비하여 출하처확보 및 바닥세를 유지하기 위한 계통출하를 하고 있다. 지난 4개월간 15억원의 실적을 올린 계통출하는 출하예정 10~20일 전에 조합에 연락하면 조합용차가 농가를 방문하여 상차 운송한다. 이때 대금정산은 출하당일 서울 3개 도매시장 평균가격×66%로 출하 4일후 조합원 통장에 입금된다 이러한 대금정산을 6월 1일 부터는 등급제를 매겨 실시할 예



▲ 김태환 조합장

정이다.

사료구매와 판매는 사료공장과 조합농가를 직접 연결해 주는 알선업무로 약 12% 정도 싼 값에 조합원들에게 구입해 주고 있다. 또 공판장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



▲ 광주·전남 양돈조합 공판장

돈사콘크리트 판매

축산기자재는 판매 위터킵과 최근 유럽쪽의 다두사육 농장에 설치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돈사형태로 인력난과 폐수처리에 대응코자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슬러리시스템설치에 필요한 돈사 콘크리트를 주문받아 5월 25일부터 판매

하고 있다.

특히 김태환 조합장은 축산 폐수처리 시설로서 슬러리시스템에 관심이 많은데 이 시스템의 장점에 대하여 「사료자동화 시설까지 설치시 2인이 1,500~2,000두 까지 사육이 가능하다」고 하며, 단점으로는 「돈사신축시 자동화시설 및 이 시스템 설치시 평당 50만원의 많은 설치비와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정책과 앞으로 양돈업의 전업화시대를 예견할 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이 시스템은 폐수처리시설로 정부에서 인정되지 않아 양돈협회와 함께 환경처 건설부 농림수산부 등과 각계에 폐수처리 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효돈사 시설시 부족한 목분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구입하게 된 목재파쇄기의 시연회를 지난 4월 12일 가졌다. 이 목재파쇄기의 이용은 양돈농가가 농가에서 목재를 구해놓고 조합에 연락하면 조합이 목재파쇄기를 그곳에 운반하여 톱밥을 생산하고 양돈농가를 돕는 측면에서 아직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업종조합의 발전을 위해 홍보

본격적인 업무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광주전남 양돈조합은 애로사항으로 현재 동지역축협 회원중 출자금 납입은 중위권이나 축협중앙회의 비회원으로서 축산진흥기금 및 정부의 지원을 포용할 수 없어 회원조합 가입기준인 1년동안 자생능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계통출하시 산지가와 출하처와의 가격차, 기존의 농협, 축협에 대한 조합원의 피해의식, 업종조합의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스스로 참여가 저조하여 협동조합 즉 업종조합의 발전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



▲ 톱밥 분쇄기

향후 조합의 목표로는 내년도 축협회원조합 가입을 준비하고 공판장과 여신업무 개시에 대한 사전준비, 육가공 공장설립 추진 계획 등을 세워 놓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명실공히 양돈인들을 위한 조합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협회와 조합은 2원화 될수 없다

협회와 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 김태환 조합장은 「협회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양돈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조합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협회가 활성화 되어야 조합도 성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전남도내 10개지부에 협회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협회와 조합은 2원화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친절, 봉사, 단결 등 직원들의 정신자세를 바탕으로 '92년 UR협상타결,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양돈산업을 발전 육성시키는 길을 열고자 노력하는 광주전남 양돈조합이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지)